

디지털타임스

2010. 4. 8

KAIST 출신 유담 박사 UAE MIST 조교수 임용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0-04-08 20:54

KAIST 졸업생이 아랍에미리트(UAE) 연구중심 대학원의 조교수로 임용됐다.

KAIST는 KAIST에서 학·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마친 유담 박사가 미국 MIT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UAE 마스다르 과학기술원(MIST) 교수로 채용됐다고 8일 밝혔다.

MIST는 MIT대가 아부다비 정부와 협력해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지난해 9월 개교했으며, 현재 25명의 교수와 22개국에 온 1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전기및전자공학과 유회준 교수 연구실에서 지난 1월 박사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웨어러블 센서 네트워크와 저에너지 전자회로 기술을 접목한 반창고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를 수행, 전자회로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국제고체회로학회와 고체회로학술지에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유 박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에서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한편 우리나라와 UAE간 학문적 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